

序文

人類는 歷史의 수레바퀴속에서 살고 있다. 아득한 옛날부터 現代에 이르기까지 文字가 發明된 後부터 國家에서는 歷史를 編修하여 後世에 남기었다. 그 文獻이 있기에 後世사람들은 그 時代의 興亡盛衰를 昭詳하게 알 수가 있고 國家觀民族觀의 繼承昂揚 또는 政治經濟社會文化宗教等 時代相의 變遷을 研究할 수가 있다. 이와같이 各民族도 그 根源과 系統을 밝히기 爲하여 族譜를 刊行한後 昭穆序列을 條理있게 밝히어 尊祖敦族의 美風良俗을 發揮하여 왔다. 惟我慶州李氏는 新羅開國當時 佐命功臣(諱謁平)公께서 新羅建國에 有功하셨으니 우리의 始祖할아버지가 되신다. 其後儒理王九年 西紀三十二年 瓢巖公降世二百十九년에 나라에서 李氏의 賜姓을 받았다. 그동안 近二千年間傳子傳孫하여 왔으니 우리나라 여러姓中에서 悠久한 歷史를 가진 屈指의 姓이다. 그동안 肅宗甲子(西紀一六八四年) 英祖戊辰(西紀一七四八年) 純祖甲戌(西紀一八一四年)의 三大譜와 哲宗庚申(西紀一八六〇年) 高宗壬辰(西紀一八九二年)의 益齋公派譜를 爲始하여 여러번 修譜를 하였지마는 너무 浩繁하였다. 이에 庚申(西紀一九八〇年)年봄 再思堂先生逸集을 國譯刊行하여 滿天下에 先生의 思想을 闡明하고 行蹟을 闡揚하고자 全國의 緣故있는 書院 全國各級大學을 비롯한 圖書館 및 戊午黨籍 諸先生 冑孫等에 寄贈하고 裔孫들에게 두루 普及하였던바 惟我再思堂公血孫(再思堂公派 生員公派 藏六堂公派)만으로 編纂된 族譜의 必要性이 沸騰되어 宗中各派의 意見一致를 보고 收單蒐集에 三年 編輯校正에 三年이란 六年동안 筆舌로는 形容하기 어려운 苦痛이 있었지마는 僉宗諸位의 積極的인 激勵과 協助로 結晶되어 刊行하게 되었다. 再思堂할아버지의 弘德이 慶流하여 가신지 四百八十年에 그餘裔가 二十二世孫에 이르렀고 그數가 累鉅萬에 達했으니 어찌 그陰德이 크다하지 않음오리오 우리는 再思堂할아버지의 處義不回하고 高邁한 清德을 繼

承昂揚하고 宗族間에 더욱 敦睦하게 지내도록 社會各界各層에서 猛活躍있기를 冀願하는 마음懇切하다.

일찌기 始祖께서는 慶州瓢巖에 誕降하시어 新羅開國을 도와 이땅의 歷史가 비릇하였고 益齋先祖께서는 쓰러져가는 高麗를 붙들어 세웠고 微微했던 學問을 일으켜세워 이땅에 儒學을 뿌리박아 놓았으며 再思堂先祖께서는 朝鮮朝에서 不義에 抗拒하여 燕山主戊午史禍의 名賢이 되었다代代孫孫이 뜨거운 핏줄을 이어내려 들면 孝悌하고 나면 敬慎하여 나라를 위해 나를 버렸고 공을 위해 나를 뒤로 하였으며 남을 위해 나를 讓步하였다. 나를 위해 돈을 벌고 모으지 않고 公益을 값지게 쓰려고 勤儉節約하며 부지런히 벌어서 그렇게 값지게 썼다. 언제 어디서 무슨일에나 順理에 따르고 慾心을 내지 않았으며 物外에서서 觀照하고 生覺하며 바른 學問을 옹케 닦아自我를 確立하고 迷惑되지 않았으며 毅然히 清而不隘하고 和而不流하며 悠悠度世하였다. 우리는 先祖들의 이토록 어진자취를 再吟味하고 充分히 배우고 본받아 값지고 알찬 삶을 이루어 나가도록 精勵해야 할것이다. 이것만이 위로는 祖上님을 받드는 追孝의 길이요, 아래로는 子孫들을 잘 訓導하는 길이며 永遠히 사는 길이다. 어찌 銘心하고 또 銘心하여 寤寐思服勵行하지 않으리오 이번 譜冊의 編纂과 校正에 勞苦가 많았던 淸州 惠雨氏 相驥氏 相先氏 梧倉 文熙氏 鎮川 在珍氏와 物心兩面으로 協助를 아끼지 않은 石을 敬雨氏 碩雨氏 淸州 喆雨氏 相遠氏 東熙氏 釜山 重勳氏 命雨氏 相睦氏 確錫氏 그리고 譜冊印刷를 맡아주신 大田 譜典出版社 相洙社長 諸位께 深深한 謝意를 表하여 여기에 記錄해 둔다.

戊辰一九八八年 十一月 日

再思堂公 十五代孫 相燁 識
梧村公 嗣孫

肇國以來 나라에는 國史가 있고 宗族에게는 族譜가 있어왔다. 族譜는 氏族의 山 歷史요 뿌리다. 唯我慶州李氏는 開國功臣 諱謁平公을 始祖로 한다. 初降于 辰韓의 瓢巖峰下요, 闕川楊山村에 모여 살아 村長이 되시고 六部가운데 第一이다.

羅史記曰 辰韓에 六村이 있었으니 一曰 闕川楊山村(지금의 南山里 白雲岩寺)의 村長은 謁平이고, 二曰 突山高墟村長은 蘇氏 崔氏祖요 三曰 茂山大樹村長은 俱禮馬 孫氏祖요 四曰 此角山珍支村長은 智白虎 鄭氏祖요 五曰 金山加利村長은 祇陀 裴氏祖요, 六曰 明活山 高耶村長은 虎珍 薛氏祖인데 前漢宣帝地節元年 建月朔 六村長이 闕川岸上에서 會議를 하였다. 이 時代가 곧 部族國家 形成期에 該當한다.

나라에 임금의 없으니 누구를 王으로 推戴하여 國家를 創建할 것인가에 대한 開國會誠가 있었으니 어떤 村長은 첫째 王이 될 사람은 勇氣가 있어야 하오 어떤 村長은 아니요 王이 될 사람은 힘이 세어야 하오, 또 어떤 村長은 나라를 다스리자면 말을 잘 해야 하오 또 어떤 村長은 아 니오 智慧가 있어야 하오 各己 意思를 發表하였으나 意見은 一致하지 아니했다. 이 때에 公이 말하기를 나라를 다스리자면 첫째 德이 있어야 하오, 내가 어느해 여름날 南쪽 하늘을 바라보니 楊山蘿井(南山里) 林間에 瑞氣가 冲天하고 電光이 땅에 내리어 이상히 여기고 가보았더니 白馬가 옆드려 울고 있거늘 가까이 가니 白馬는 昇天하고 그 자리에 큰 紫卵이 있어 그 속에서 嬰兒를 얻어 精誠것 기르니 다른 아이보다 아름답고 夙成하고 智慧가 있고 德性이 있어 보통 사람보다 뛰어나 童子나 이 十三歲 되던해에 德望있는 赫居世를 王으로 推戴하니 六村長 모두 贊成했다. 그 해가 始祖나 이 六十一 回甲年이고 漢宣五鳳元年 甲子年이다. 西紀前 五十七年에 該當된다. 賜姓은 儒理王九年壬辰 西紀三十二年의 일이니 他姓과는 特異한 緣由를 가지고 있다.

貂蟬相繼하고 積德種善하여 千戴하니 三韓甲族이다. 羅季에 諱 居明即 眞骨蘇判이다. 十七世 諡 文忠 益齋公은 壁上三重大匡右政丞 門下侍中 鷄林府院君 領藝文春秋館事 推誠亮節同德贊化功臣 諱는 齊賢이요 四相七朝를 歷任하고 文章道德이 天下에 떨치었다. 二十三世 昌平公 諱 公麟는 朴醉琴軒 彭年の 婿이요 委禽之夕夢에 자라 여덟을 살려주면 아들 여덟을 두리라하니 異常히 묻고 자라를 活水했다. 드디어 生八男하니 一曰 鼈 二曰 龜 三曰 龜 四曰 鼈 五曰 鼈 六曰 鼈 七曰 鯨 八曰 鯤이니 世稱 八鼈子孫으로 名門巨族이다.

今般出譜는 昌平公孫 八鼈三派 合同大譜로 八·三定本이라 八兄弟분중 第三曰 龜 第四曰 鼈 第五曰 鼈 三派子孫이다. 이런故로 再思堂 本孫譜요 三派同一이다. 再思堂 第四子인 渤字出系 鼈子하고 第二子인 河字出系 鼈子하니 再思堂之生男 四子孫으로 歸一하여 再思堂公派大同譜(洙河江渤)纂書이다.

裔孫蕃衍하여 數萬이요 於焉 五箇星霜 世上도 一變하여 正易의 새 歷史가 到來하니 우리 子孫은 누구나 洋風에만 따르지 말고 한 집에 한 질의 族譜를 모시고 祖上의 遺德을 追慕하고 祖上을 崇拜함으로 子孫된 道理를 다 해야한다.

譜는 거룩한 敎訓이요 뿌리요 歷史이니 父母에게 孝道하고 同氣間에 友愛있고 敬祖敦宗하여 變遷하는 世上에서 協同和愛하고 脫線하는 일이 없이 祖上을 辱되게 해서는 안되겠다. 族譜를 거울삼아 自身은 勿論 祖上을 빛내야 하겠다. 其間 碧梧公 十一代宗孫 相燁氏의 平生所願으로 晝夜間 献身刻苦한지 十年 또 遠近子孫들이 合謀注力하여 譜冊이 完成되기까지 連人員 幾千을 헤아린다. 今般 다시는 손 대기 어려운 尨大한 大譜事를 마침에 再三 敬意를 表하면서 跋文을 叙하노라. 戊辰西紀一九八八年 首夏 朱明

跋文

사람이 先祖가 있는것은 나무에 뿌리가 있는것과 같고 宗族이 많이 繁盛함은 나무가 千枝萬葉으로 始分됨과 같으니 宇宙의 奧妙한 自然法則이 사람이나 草木이나 같은 原理로 태여남이니 木根은 陰이요 木은 陽이요 사람의 祖上은 陰이요 산 사람은 陽인것이니 天地陰陽의 理이다. 그런고로 木根을 잃으면 枝葉은 良水을 얻지 못하여 시들어 말라버리고 사람들은 祖上을 잃으면 陰德을 입지 못하여 路人이 되어 버리는것은 人倫의 理인 것이다. 사람은 萬物의 靈長이라 三綱五倫을 지키고 先祖를 尊崇하여 祭祀하고 어른은 子孫을 慈愛 訓育하고 子孫은 어른을 恭敬하여 孝道로 받들고 더 나아가 나라에 忠誠하고 宗族을 恭敬과 사랑으로 和合하면서 五千年의 빛나는 歷史를 創造하였음은 實로 나라의 뿌리와 宗族뿌리의 얼을 綿綿히 지켜 이어온 東方氏族의 찬란한 文化이며 우리 先祖들의 遺業이며 風俗이며 敎訓인 것이다. 各宗族들이 族譜를 編纂하는것은 先祖의 遺訓을 받들어 宗族間에 더욱 和睦하고 發展하면서 人間道理의 根本을 잊지 않고 사람답게 살아가는데 뜻이 있는것이니 族譜는 人道에 重大한 先祖의 얼을 심어주는 正統성을 지니고 있다 할것이다. 우리 慶州李氏는 新羅때 始祖瓢巖公 諱謁平을 爲始하여 蘇判公 諱居明後 子孫繁盛하고 勲功이 赫赫하고 忠孝道德이 繼承되었으며 高麗末期에 益齋公의 六代奉王四回政丞의 特出한 功績은 後孫에게 一大龜鑑이 될것이다. 훌륭한 先祖를 기리기위해서 再思堂公 后裔 各派門中에서 論하기를 現世熊가 옛과 달리 全國이 一日生活圈으로 變遷하면서 活動이 넓어짐에 따라 우리의 族譜도 領域을 넓혀야 現代에 合當하다고 論議되었기로 癸亥年 大宗會때 이를 提議함에 諸宗會員께서 族譜는 자라는 後孫들이 耽讀하기에 便利하고 内外面으로 더욱 忠實하게 再思堂公 血孫三派로 擴大 編纂함이 可하다고 決定하고 其後 各派의 決定에 따라 各派

代表에게 委任되어 이에 따라 總責은 梧村公 十二代嗣孫 相燁甫께서 編纂의 大任을 擔當하게 되
고 이제 戊辰八三譜의 發刊이 곧 目前에 있게 되었다。各派 諸孫께서 誠實하게 納單하여 주심
에 힘입어 特히 譜書의 博學으로 因하여 八旬老軀를 무릅쓰고 晝夜로 勞心焦思한 相燁甫는 惠
雨 相先 相驥 文熙 在珍氏와 더불어 數年間 暴炎속에 精抄와 校正役에 手苦를 아끼지 않음으로
해서 譜牒을 早速히 發刊하게 되는데 對하여 옆에서 지켜본 宗員으로서 感謝를 드리는 바입니다。

戊辰一九八八年 晚秋

豊川公 十五代孫 濟民 謹跋

慶州李氏分籍圖

遠代孫
居明—金現

三世—金書
四世—潤弘
五世—承訓
六世—周復
七世—侑
八世—修連
九世—寵運

始祖
謁平

遠代孫 開
遠代孫 渭
遠代孫 球

潤張
潤遠(一名椿柱)

周佐

禹侑

春林—錄千—俊億—仲和—廷翹—淑貞—芮—孫寶—吉祥

申佑

八代孫

忠堯

之秀：本貫慶州
之行：分籍原州

翹—直幹
翹—臣裕—元茂

二〇世

淑魯：本貫慶州
處中：本貫慶州

一〇世—春貞
一一世—玄福

一二世—宣用
一三世—升高
一四世—得堅

一五世—翹

一六世—仁挺

一七世—樽

一八世—大禪師

世基

禧

本貫慶州

適

本貫慶州

適

本貫慶州

如海

大禪師

之正

本貫慶州

齊賢

本貫慶州

瑄

本貫慶州

樛

本貫慶州

分籍牙山
分籍平昌
分籍加平
分籍陝川
分籍車城
分籍羽溪

慶州李氏本宗分派圖

始祖 謁平 — 遠代孫 居明 — 金現 — 金書 — 潤弘 — 承訓 — 周復 — 儻 — 侈連

一世 二世 三世 四世 五世 六世 七世 八世

九世 寵暹 — 春貞 — 玄福 — 宣用 — 升高 — 得堅 — 翻 — 仁挺 — 特 — 一七世 — 一八世 — 一九世 — 二〇世 — 二一世

春林 — 錄千 — 俊億 — 仲和 — 廷翻 — 淑貞 — 芮 — 孫實 — 吉祥

申佑 — 作良 — 善景 — 方烈 — 黃升 — 克良 — 昌規 — 賁 — 忠堯 — 忠義 — 之秀 — 之行

翻 — 直幹 — 元茂 — 元茂 — 昌規 — 賁 — 忠堯 — 忠義 — 之秀 — 之行

世基 — 蔣 — 適 — 適 — 蔣 — 如海 — 之正 — 齊賢 — 瑄 — 樛 — 特 — 一七世 — 一八世 — 一九世 — 二〇世 — 二一世

蔣 — 適 — 適 — 蔣 — 如海 — 之正 — 齊賢 — 瑄 — 樛 — 特

如海 — 之正 — 齊賢 — 瑄 — 樛 — 特

之正 — 齊賢 — 瑄 — 樛 — 特

齊賢 — 瑄 — 樛 — 特

瑄 — 樛 — 特

樛 — 特

特

特 — 大禪師

特 — 評理公派

特 — 怡庵公派

特 — 益齋公派

特 — 護軍公派

特 — 大禪師

特 — 菊堂公派

特 — 副正公派

特 — 尚書公派

特 — 舍人公派

特 — 判典公派

特 — 月城君派

特 — 分籍原州

特 — 養吾 — 直長公派

特 — 存吾 — 石灘公派

特 — 存中 — 進士公派

特 — 存斯 — 校勘公派

慶州李氏本宗分派圖

